

디자인대학의 광고홍보학과, 또 해낸다!

‘CLIO AWARDS’에서 금상, 동상 2, 본상 Shortlist 8 수상 쾌거



▶ ‘CLIO AWARDS’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 사진.

2024 ‘CLIO AWARDS’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상을 탔다. 우리 대학은 광고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2024 CLIO AWARDS’에서 금상, 동상(2)과 본상 Shortlist(8)을 수상해 쾌거를 이뤘다. 국내 대학으로는 우리 대학만이 유일하게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 금상 수상은 우리 대학과 제일기획이 금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전세계 대학 중 7개 대학만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으로는 우리 대학이 유일하게 금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에서는 우리 대학과 제일기획이 유일하게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해 수상 작품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3.0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융합 교과목인 ‘아이디어선용합합습’(광고홍보+디자인+소프트웨어) 교과목과 광고홍보학과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결과물이다. 시상식은 미국 NYC 고심 홀에서 5월 1일에 열렸다.

금상 수상작인 ‘Crocs Check’는 문기현·조현민·권은경·김민성·강동호 학생, 동상 수상작 ‘Signal Convex Mirror of Volvo’는 조민웅·김가영·진다연·송예람 학생, ‘Mart Track’은 문기현·조현민·권은경·김민성 학생이 주인공이다.

금상 수상작품인 ‘Crocs Check’는 아동 범죄예방안전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0초 마다 한 명의 아이가 사라진다. 아동 실종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며 부모는 아이를 찾으려 돌아다니지만 아이 또 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가 엇갈리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인지하기 쉬운 신호등의 RED/GREEN LIGHT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하는 아이디어다.

금상을 수상한 ‘Crocs Check’의 조현민 씨는 “수업을 통해 여러 가치를 배우며 다채로운 경험을 토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 금상을 받은 ‘Crocs Check’ 팀의 사진.

“아이디어를 만들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은 제게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클리오어워드는 1959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약 65개국에서 18,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고 있으며, 국제광고협회(IAA)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광고제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인 및 학생의 구분 없이 오직 창의성만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클리오어워즈에서만 2020년 처음 출품하여 은상, 동상, 그리고 본상(Shortlist)를 수상했고, 2022년에는 은상 2개, 동상, 그리고 본상(Shortlist) 2개를 획득하였으며, 마침내 2024년에는 금상 수상과 동상 2개와 본상(Shortlist) 8개를 수상하여 클리오어워즈에서만 총 19작품의 수상실적을 보이며, 디자인 특성화 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 영예의 수상자 명단

- Crocs Check(Fashion & Beauty 부문: 금상) : 문기현, 조현민, 권은경, 김민성, 강동호
- Signal Convex Mirror of Volvo(Out of Home 부문: 동상) : 조민웅, 김가영, 진다연, 송예람
- Mart Track(Innovative Use of Channel 부문: 동상) : 문기현, 조현민, 권은경, 김민성
- Safe Arrow(Branded Entertainment & Content 부문: 본상) : 이재재, 박동현, 오유나, 이상준, 홍재원
- Ultra Sound for All(Product Design 부문: 본상) : 김재현, 한소진, 김민지, 최혜민
- Michelin Zone(Events 부문: 본상) : 김시은, 이정연, 홍다연, 최지희, 오준형
- Netlix Extrip(Digital/Mobile 부문: 본상) : 이민정, 김가을, 김민지, 김정민
- Mart Track Apps 부문: 본상) : 문기현, 조현민, 권은경, 홍영은, 김민성
- Crocs Check(Product Design 부문: 본상) : 문기현, 조현민, 권은경, 김민성, 강동호
- Signal Convex Mirror of Volvo(Product Design 부문: 본상) : 조민웅, 김가영, 진다연, 송예람
- Ultra Sound for All(Product Design 부문: 본상) : 김재현, 한소진, 김민지, 최혜민
- Michelin Zone(Events 부문: 본상) : 김시은, 이정연, 홍다연, 최지희, 오준형

승리의 함성! 팜방울의 쾌감!

신동원, 전국 유니버시티 퍼스트 챔피언십 2관왕 달성



▶ 체육학과 신동원 학우 사진

우리 대학 체육학과 20학년(3학년) 신동원 선수가 4월 28일에 서강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전국 유니버시티 퍼스트 챔피언십(보디빌딩, 피트니스)에 출전해 2관왕을 차지했다.

한국대학 보디빌딩 & 피트니스연맹 대회는 2022년 1회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2022년 2회 우리 대학 주례캠퍼스, 2023년 3회 뉴욕주립대 인턴글로벌캠퍼스, 2023년 4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024년 5회 서강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2022년 제2회 우리 대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운동 처방 학과 20학년인 배유림 학우가 -163cm이하급 비키니 피트니스에서 우승과 함께 같은 종목 오보로 챔피언으로 그랑프리로 선발돼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었다. 더불어 체육학과 15학년 최용국 학우는 보디빌딩 -80kg급에서 2위를 차지했고 체육학과 22학년 김종원 학우는 맨스프츠모델에서 6위를 차지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됐다.

2024년 제 5회 대회에는 전국 39개 대학 13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6종목(맨즈 보디빌딩 8체급, 맨즈 클래식 보디빌딩 5체급, 우먼즈 보디피트니스 2체급, 맨즈 피지크 4체급, 우먼즈 비키니 피트니스 4체급, 맨즈 스포츠모델 2체급, 우먼즈 스포

츠모델 2체급)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체육학과 신동원 학우는 맨즈 보디빌딩 -85kg급에서 1위, 맨즈 클래식 보디빌딩 -180cm급에서 1위를 차지해 2관왕을 달성했다. 신동원 학생은 학교와 개인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며 2023년부터 체육학과 학습공동체(보디빌딩) 멘토로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직도 승리에 목이 마르다며 향후 체급 우승뿐만 아니라 통합 챔피언이 돼 오보로에서도 반드시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전문 보디빌딩 선수와 트레이너로서의 꿈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보디빌딩학습공동체 지도교수인 체육학과 임백민 교수는 신동원 학우의 꾸준한 성실성과 타고난 재능을 달란트로 개발시키고 BDAD의 좋은 모델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신동원 학생과 비슷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달란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 명실상부한 피트니스에 강한 우리대학 체육학과를 만들고자 다양한 지원을 고민 중이라 밝혔다. 그리고 2024년 대학혁신사업단과 교수처의 지원을 받아 DS 피지컬 100 대회를 준비하며 더욱 다양한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고 보급하겠다고 강한 자신감과 포부를 밝혔다.

류길환 기자
jyw8284@gmail.com

첫 장편영화로 로마국제영화제 2관왕까지!

영화과 14학번 졸업생 정지혜 <정순> 전국 개봉



▶ 시사회에서 정지혜 감독과 정재국 총장, 임권택 감독

우리 대학 14학번 영화과 졸업생 정지혜 감독의 이 지난 4월 17일에 전국에서 개봉됐다. 영화 <정순>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결코 나다움을 잃지 않고, 끝은 끝으로 나아가려 하는 정순(김금순 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작품이다.

영화 <정순>은 부산 출신인 정지혜 감독이 지역에서 기획과 제작, 촬영, 후반작업까지 모든 작업을 진행한 ‘부산표 영화’다. 후반작업까지의 과정에서 부산영상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2019년도 ‘부산 신진작가 영화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과 2021년도 ‘부산지역 영화·영상 콘텐츠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지원작’에 선정되면서다. 촬영은 부산과 양산에서 이어갔다.

또한 우리 대학의 연기와 12학년 고은렬, 12학번 정재환, 15학번 박광서, 15학번 박우일, 16학번 정세비 졸업생이 출연해 작품을 빛내기도 했다. 또한 개봉 전

지난 4월 4일 용산 CGV에서 열린 VIP 시사회에는 정재국 총장과 임권택 감독이 참석해 가장 주목받는 신인, 정지혜 감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해당 작품은 ‘17회 로마국제영화제’ 2관왕 외에도 전 세계 19개 영화제 초청, 8만 왕에 이르며 화제가 됐다. 또한 정지혜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써, 로마국제영화제 2관왕의 수상 업적은 큰 의미가 있다.

정지혜 감독은 시사회 무대인사에서 영화와 재학 시절 들었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영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임권택 석좌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화 <정순>은 정지혜 감독의 첫 번째 장편영화이자 네 번째 작품이다. 정지혜 감독은 동서대학교 재학 중 만든 2017년 단편영화 ‘연도’, 2018년 ‘매월기’, 2019년 ‘버디고’ 등의 단편영화를 주목을 받았다.



▶ 영화 <정순>의 촬영 현장

졸업 후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기획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돼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영화 <정순>은 부산에서 교육받은 감독이 기획, 제작, 후반 작업까지 부산에서 진행한 영화다. 순도 100% 부산표 영화인 것에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영화 <정순>의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수상 내용의 기사다. 영화는 올해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을 받았다.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받은 정지혜 감독의 ‘정순’은 부산영상위원회의 2019년도 ‘부산신진작가 영화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과 2021년도 ‘부산지역 영화·영상 콘텐츠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지원작에 선정됐던 작품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영화 <정순>에 대해 “동영상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시간당 사자인 정순의 표정과 몸짓이 포커스를 맞춰 인간적 수모를 감당하던 한 여성의 결단을 힘 있게 묘사한다”고 평가했다.

▶ 사진출처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정지혜 감독은 “이번 영화에 담은 이야기와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도 감사하다”며 “영화제에서 배급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고, 올해 안에 개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은 5일 “부산시에서 크고 작은 지원사업을 했지만 팔뚝을 만한 성과가 없어 답답했다. 이제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기쁘다”면서 “중요한 것은 규모와 장르 관계없이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김진수 운영위원장도 “정순처럼 부산에서 지원받고 제작된 영화가 좋은 결과를 냈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원과 제작, 성과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지속 가능한 바텐딩 교육

페르노리카코리아와의 협약

지난 5월 9일, 우리 대학에서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Pernod Ricard Korea)가 ‘지속 가능한 바텐딩(Bar World of Tomorrow)’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속 가능한 바텐딩’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페르노리카 그룹의 대표적인 지속 가능 책임경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주류 산업 전반에 지속 가능한 바 문화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학생들(법적 음주 허용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생 중에는 졸업 후 바로 호텔, 레스토랑 등 바로 전문 분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현업에서의 교육 효과가 확대됨을 기대했다.

이에 올해까지도 운영할 예정이었던 우리 대학과의 교육 협약(MOU)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기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은 것이다. 부산에서의 지속 가능한 바 운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진행하던 해당 프로그램을 부산으로 확장했다. 바(bar) 산업만 아니라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은 우리 대학 선행 캠퍼스에서 진행했다. 또 친환경 바 문화 구축에 기본이 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관련 지식을 확대하도록 돕고, 나아가 책임 음주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상세히 전달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법적 음주 허용 연령의 바텐더와 바 소유주를 대상으로 페르노리카 그룹의 지속 가능 책임경영(S&R) 활동과 그 사례를 소개하고, 사람과 환경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바텐딩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페르노리카 코



▶ 지속 가능한 바텐딩 로고
▶ 사진 출처 - 페르노리카코리아 홈페이지

리아는 수도권 지역 외에 제2의 도시인 부산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바 문화를 확장하고, 한국의 미래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문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19세 이상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4월부터 매년 ‘지속 가능한 바텐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호튼(Frantz Hottton) 대표는 “올해도 미래의 호스피탈리티 전문 인력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책임 있는 음주 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해 산업 전반에 친환경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르노리카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바텐딩’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바텐더들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도 바, 호텔, 레스토랑 종사자들을 비롯해 제주 한라대학교, 제주대학교, 수원 국제대학교, 전주대학교 호텔 및 외식 조리 관련 전공의 법적 음주 허용 연령 대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의 참여 인원이 총 500여 명에 이른다.

손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2024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박람회 개최

MD를 통한 전공심화 및 융합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박람회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우리 대학 교무처는 2024년 학년도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

스튜던트 플라자 3층 및 학교 가상 공간인 게이더에서 개최했다.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박람회는 융합 연계전공을 포함한 8개 단과대학, 51개 학과(전공) 및 행정 부스 2개 등 총 53개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전공박람회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의 관심 전공 및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 간의 공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전공별 MD명, MD의 구성, 이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소단위 전공 과정(마이크로 디그리, MD)은 개별교과목의 상위 개념이자 전공(학과)의 하위 개념으로, 9학점 이상 15학점 이하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소단위 전공 과정의 목적으로는 ▲미래 사회 유망 분야 핵심 직무 학습 ▲학생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융합교육 지원 등이 있다.

소단위 전공 과정 유형으로는 전공심화 MD와 융합연계 MD가 있다. 전공심화

MD는 전공 분야의 심화된 학문 탐구와 핵심 직무능력을 학습한다.

구성 학점은 전공 교과목 9~15 학점이 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1건 이상 이수한다. 융합연계 MD는 전공 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분야와 4차 산업 유망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구성 학점은 9~15학점이다. 소속 전공 교과목 외 타전공 교과목 1개 이상(3학점 이상) 포함한다.

전공 심화 MD는 학과에서 개설했기에 이수에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신청한 MD의 이수 교과목이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들과 일치할 경우 신청 직후 MD 이수가 가능하다.

융합 연계 MD의 경우 타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적성을 찾을 수 있다. MD 이수를 목표로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학과 외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MD는 졸업증명서에 이수 내용을 표시해 향후 졸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작년 교육부가 개최했던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이 학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모듈형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해 177개 마이크로디그리를 개발한 사례를 발표했다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

다. 우리 대학은 전공심화 마이크로디그리 125개와 융합연계 마이크로디그리 52개로 구분했다.

김희성 우리 대학 교육혁신 센터장은 "기존 모듈 체계에서 과도한 타전공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으로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체계로 개편해 융합교육 성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 디그리 신청방법은 먼저 우리 대학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MYDEX)'에 들어간 후 '소단위 전공 과정' 창의 마이크로 디그리 신청을 누른다. 다양한 MD 목록이 있는데 그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단과대와 학과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더 쉬운 MD검색이 가능하다.

이제 기존 이수 교과목을 확인하고 해당 MD를 신청하면 된다. 미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은 본인이 추가로 수강하여 채우면 된다.

이미 1과목 이상 이수한 교과목이 있는 MD는 추천을 통해 알려주므로 본인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현황에 들어가 본인이 신청

한 MD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한 MD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신청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박람회는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를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최했다. 또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를 통해 미래 사회 유망 분야의 핵심 직무를 학습할 수 있고, 마이크로 디그리의 이수증 발급을 통해 전문역량의 개발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행정 부스에서는 교무처 학사운영실에서 학과 이동, 부전공, 복수전공 등 학사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진로, 취업, 청년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학생들의 상담 및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중건 교무부처장은 "이번 전공박람회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전공의 다양한 마이크로 디그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혁 기자
sinh730688@gmail.com

작업치료학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다

사상구노인 복지관, 우리 대학과 협력 사업 추진



▶삼김 장애 케어단의 단체 사진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사상구노인복지관(관장 서정희)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의 윤태형 교수는 "지역 사회 노인들이 뜯고 씹고 맛보는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병원, 복지관, 업체와 협업을 예정이며 일본의 레이와보건대학교(REIWA Health Sciences University) 교수진과 함께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단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삼김장애의 경계성 또는 고위험군 고령자를 조기 선별해 증상에 따른 맞춤 재활 프로그램,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정밀 진단, 삼김장애 케어를 위한 필수 영양 공급 및 식이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 자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 상생 협력 지원 사업은 부산시의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원한다.

우리 대학 작업치료학과를 주관 기관으로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상구노인복지관, 인제대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지체속류선 등이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동시다 작업치료학과 학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지 기자
glok779@gmail.com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사상구노인복지관(관장 서정희)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의 윤태형 교수는 "지역 사회 노인들이 뜯고 씹고 맛보는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병원, 복지관, 업체와 협업을 예정이며 일본의 레이와보건대학교(REIWA Health Sciences University) 교수진과 함께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단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삼김장애의 경계성 또는 고위험군 고령자를 조기 선별해 증상에 따른 맞춤 재활 프로그램,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정밀 진단, 삼김장애 케어를 위한 필수 영양 공급 및 식이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 자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 상생 협력 지원 사업은 부산시의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원한다.

우리 대학 작업치료학과를 주관 기관으로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상구노인복지관, 인제대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지체속류선 등이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동시다 작업치료학과 학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청춘들의 열기로 가득 찬 우리 대학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 대학 청춘들의 뜨거운 열기



▶축제를 즐기고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

지난 5월 2일 우리 대학 종합운동장에서 '2024 민선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 참가자들은 3가지 포인트가 존재했다. 첫 번째로 "마음" 마음이 즐거워지는 부스 행사 두 번째 "눈" 눈이 즐거워지는 동아리 공연과 연예인 공연! 세 번째로 "이벤트" 음모권 추첨과 가요제 관람 시 문자 투표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또한 체육대회까지 연달아 개최되면서 중간고사를 끝낸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민선 축제는 우리 대학 스튜던트 플라자 운동장에서 열렸다. 축제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진행했다. 아르바이트가 있거나 수업이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도 끝나고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진행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D-Membership 카드와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축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

축제의 첫 시작은 단대, 동아리, 국제처 부스 운영이 진행됐다.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제시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각 부스는 자신만의 매력과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부스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학교 커뮤니티의 화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동아리 멤버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다. 수주간의 열성적 연습해 준비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열정과 실력을 발휘했다. 각 동아리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했다. 동아리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함께한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공연장을 빛내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세 번째로 동서 가요제 예선전이 진행됐다. 이는 학생들에게 음악적 열정과 표현을 제공한다. 동시에 분위기를 더 활기



▶공연하는 오마이걸 모습

차게 만들어 준다. 예선전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노래와 연주를 자유롭게 선보였다.

네 번째로 롯데 지어인트 치어리더 응원전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치어리더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학교 축제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 축제장을 한껏 열거 밝혔다. 그들의 화려한 의상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 특별한 응원전은 우리 대학 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롯데 지어인트의 치어리더들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섯 번째로 동서 가요제 본선이 시작됐다. 본선에 진출한 학생 개인들은 예선에서 뛰어난 실력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본선 무대에서 그들의 음악적 열정을 더욱 힘차게 발휘했다. 각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고, 그들의 스타일로 표현해 무대를 가득 채웠다. 각각의 개성과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다. 이 특별한 공연에 오마이걸과 오

반이 초청 됐다. 오반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R&B 가수이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메시지가 깊은 가사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오반의 음악과 감성적인 보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청춘의 감성을 담고 있어 학생들과 청춘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줬다.

오마이걸은 팝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걸그룹이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멤버 중 승희가 빠져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번지리를 충분히 메워줬다. 오마이걸은 이번 축제에서 더욱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우리 대학 학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 공연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관객들을 최고의 열광으로 이끌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불꽃놀이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민선축제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열정적인 무대들이 모두를 감동하게 하고 즐겁게 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함께 또 같이, '2024 International Day'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소통의 장 열려



▶학생들의 '2024 International Day' 참여 사진

지난 5월 8일 수요일, 우리 대학의 International College는 '2024 International Day'를 개최했다. IC 빌딩 2층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펼쳐진 International Day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학생들이 준비한 각종 음식 부스를 중심으로 캠퍼스 버스킹, 카네이션 만들기, 게임 및 행운권 추첨, 플라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International Food 부스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학생들이 각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어비날 담당 진행한 행사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도 진행됐다.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 직접 만든 장식품을 선물하는 플라마켓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캠퍼스 버스킹에서는 미래커리어대학의 장구 동아리가 특별 공연을 펼쳐 학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을 주변으로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은 유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약 5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즐겁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의 International College는 세

계적 수준의 단과대학으로서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해 이론과 실무가 융합되는 최첨단 배움의 장을 확산한다.

또 우리 대학의 'International College'는 외국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한 한·중·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캠퍼스아시아학과'와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들로 구성돼 있다.

'캠퍼스아시아학과'는 2019년과 2020년에는 한·일·중 CAMPUS Asia 본 사업 중 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대교협)를 받았다. '외국인전담학과'는 2022년 Animation&VFX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천대학교와 제2차 북수학위협정을 체결했다. 이 학과들은 우리 대학만의 특화된 국내 유일의 글로벌 교육을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한국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간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동서 글로벌 영어프로그램과 민선교양대학과 협력해 한국인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로 강의하는' 교양교육 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영어집중 과정, 해외대학과의 학점교환 '한국어와 영어집중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부산시 창업 꿈나무들에게 기회를 주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부산시 사업패키지



▶부산시청 전경

▶사진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시는 '지자체-지역대학-민간-공공 지원기관'이 협업해 혁신 창업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2024년 부산 U 창업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U 패키지'의 본격 추진을 공식화하고, 성공 추진을 다짐하기 위해 7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비, 스타트업 스테이션 109호에서 결의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2023년 사업성과 영상 상영 ▲2024년 사업 소개(PPT) ▲협업 세미나(플래카드)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진다.

'U 패키지'는 올해 2회차를 맞이해 사업 참여기관과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수료 확인서 발급, 평가 체계 적용 등 한층 고도화된 체계를 갖춘다. 시, 지역대학 14개교, 지원기관 5곳 등 총 20개 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학은 지난해 6개 대학에서 14개 부산권 LINC3.0 사업 참여 대학으로 확대하고, 협업대학의 대학생 창업팀 38개 팀이 참여한다.

지원기관은 지난해 4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지역 금융 기관인 'BNK금융그룹'과 부산 벤처기업의 허브인 '부산벤처기업협회'가 새로운 지원기관으로 협업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필수 액셀러레이터(AC)'는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업을 지속하며 실전 투자 교육, 네트워킹, 글로벌 창업캠프 등 글·양성하는 지원을 함께한다. U 패키지 전체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취·창업에 활용도록 부산시장과 국립부경대 총장 공동 명의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수에서 일부 통과제과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올해 'U 패키지'는 ▲실전 창업 묶음 지원(5단계) ▲스타트업 U 인턴십 ▲스타트업 채용설명회 등 총 7단계 과정을 지원한다. '실전 창업 묶음 지원'은 총 5단계로 ▲창업 교육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시연회(IR 피칭 경진대회) ▲글로벌 창업캠프로 진행된다.

선발된 팀은 비엔케이 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실전 투자 교육을 시작으로 총 6회 교육을 받는다. 기간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출석 우수 팀 대상으로 평가 및 면접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20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단계를 진행한다.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업이다. 참여팀 전원은 일대일 전문 자문을 지원받는다. 우수 팀에게는 부산경제진흥원장상을 수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김건우 학생

여하며 상위 개 팀을 선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 단계'는 부산벤처기업협회와 협업으로,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실용형 시제품 제작과 전문가 지도 코칭을 받는다. 시제품 제작 과정을 마치면 최종 구상 사업을 선보일 시연회 피칭 경진대회를 열어 대상 개 팀에 부산 시장상을 수여한다. 시연회까지 통과한 팀에는 세계 글로벌 창업캠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참고로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인 김건우 학생은 2024년 창업 중심대학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700만원을 수주했다. 김건우 학생은 수업을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를 동서대학교 SW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으로 개선했고 최종적으로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회 속 삶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했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또한 창업 중심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됐고, 이것이 제가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라고 창업계획을 말했었다. 우리 학교 SW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AISW창업동아리', 'AISW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IR 피칭 대회', '창업 기자재 및 공간지원' 등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최봉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상상력을 구현하는 가장 쉽고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수업이나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설계로만 끝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생각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최종단계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건우 학생의 창업을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2024년 학생 창업이라는 좋은 성과를 시작으로 내년에 더욱 기대됩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부산에 살거나 사업에 꿈을 꾸는 이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재원 기자
jw03031121@gmail.com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업의 요람

창업지원단 손현목 팀장과의 인터뷰



▶부산창업가꿈

Q.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 팀장을 맡고 있는 손현목입니다.

Q. 우리 대학의 창업지원단은 어떤 곳인가요?

A.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업의 요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주요 활동과 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보육 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벤처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홍보비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으로 선정돼 창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다빈치 랩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지원단은 어떤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A. 다양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창업지원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창업지원단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A. 현재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LINC 3.0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DSU PASTEL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은 창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창업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팀당 최대 1,000,000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구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창업을 고민중인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창업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 창업의 길은 도전과 혁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와 열정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학교가 지루해? 서포터즈 활동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학생 수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활동 중인 이연우 학생



▶202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활동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2학년 이연우라고 합니다.

Q.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제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희망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한 제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전공학과와 학교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학교생활에 흥미가 생길 만한 새로운 활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Q. 서포터즈 활동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우선 서포터즈의 'support'는 '도움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홍보하고 진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정해진 홍보 주제에 맞춰서 팀원들과 자료를 준비해 홍보 방향을 직접 짜며 진행했습니다.

관련 홍보 포스터, 가랜드 등을 제작하고 홍보를 위해 이목을 끌만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직접 홍보 자료를 나눠주며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진로·취업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대외활동 안내 등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졸업일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면접의상을 대여해 주는 '두드림옷장' 프로그램의 존재에 한번 놀랐고 좋은 아이디어에 두 번 놀랐습니다. 좋은 정보들은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잘 이용해서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서포터즈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라면 대면 홍보활동 중 배뽀로데이 이벤트와 함께 진행한 홍보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튜던트플라자 안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의 한해서 추첨을 통해 11월의 배뽀로데이를 의미하는 배뽀로를 쟁겨드리는 이벤트와 더불어 진행하는 대면 홍보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지쳐있을 때 배뽀로로 인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니 홍보하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소소한 행복을 함께 가져가며 지친 학생들이 잠시 웃으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다른 홍보보다 조금 더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활동이었습니다.

Q.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흥미가 생기게 돼 의미가 있었던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라는 것에 책임감이 생겨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팀원들도 다 함께 적극적으로 일해주어 큰 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더군요. 활동을 통해 팀원들끼리도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 활

동 기간 중에 정이 들어 올해 2024년 서포터즈 활동에도 전 팀원들과 함께하는 그룹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대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용기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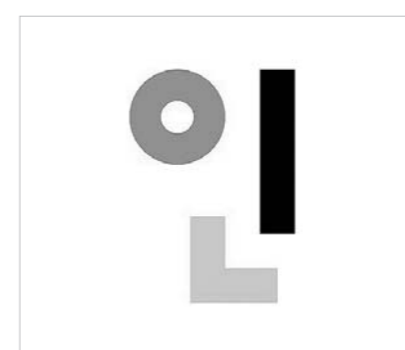
Q. 서포터즈 활동 관련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A. 2023년도 2학기 때 서포터즈 활동을 알게 돼서 약 2~3달 밖에 활동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24년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다면 아쉬웠던 만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기존 팀원도 좋지만 새로운 팀원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팀이 돼서 성장할 모습으로 더 클리어되는 홍보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만약 2024년도 서포터즈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비밀 서포터즈 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취업 함께해요

당신의 성장 과정은?



▶인크루트 사이트 로고

'저는 2남 1녀 막내로 태어나, 혹독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문장은 대표적으로 잘못 쓴 예시다. 혹시 자기 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성장 이야기로 소개하는 인제상과 부합하는 가치관과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까지의 노력을 작성해야 한다. 넷째, 실제 사례와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첫째, 성장 과정에 담긴 특성이 회사의 직무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의미 없이 성장 과정을 나열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가치관과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까지의 노력을 작성해야 한다. 넷째, 실제 사례와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먼저 나를 어필할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적으며 실제 적용 사례를 적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며 스스로 얻은 것, 실천한 것에 대해 어필해 보자. 사회복지와 졸업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임상병리학과 졸업생이 임상병리사 자격증

을 이야기하면 큰 메리트가 없다. 자격증이 아니라도 수업 외 교육, 남들과 다른 도전을 한 노력, 결과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사이트 '인크루트'에서는 합격한 자기소개서 샘플 확인이 가능하다. 자기소개서 뿐 아니라 취업 가이드북, 이력서 양식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은 'CJ제일제당'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한 신입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참고했다.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자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콘텐츠 제작 경험에 대해 작성했다. '니즈 파악을 통한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 여행 동아리 회장일 때 맡았던 '인생샷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MT 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를 준 내용을 어필했다. 수요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글로벌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며 고객에 몰입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기획하고,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쯤 되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눈치챘을 것이다. 지학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 동아리, 봉사활동, 외부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보자. 경험이 없는 고학년은 전공에서 쌓은 지식과 역량을 설명하면 눈치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함께 지원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온 경험을 담아보자. 소재목을 달고, 단락을 나눠 쉽게 구조화한다면 더 경험이 돋보일 것이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깊다면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대학에서의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안에서 나의 관심사와 역량을 파악해 보자. 무의미한 대학 생활은 없다. 다음 호에서는 나의 특성, 적성을 알 수 있는 인적성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같이 보는 스포츠 세상

KBO에 드리운 어둠 : 오재원 게이트

오재원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파국



▶ 최근 마약으로 구속된 오재원

최근 한국 프로야구계는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으로 촉박이 됐다. 두산 베어스 출신의 전 국가대표인 오재원이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마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맡기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재원은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하며 프로 데뷔를 했다. 현역 시절에는 비배너 플레이로 일방아에 오르기도 했지만, 입단한 이래 두산에서만 원 왼쪽으로 뛰며 두산 팬들에게만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9년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는 데일리 MVP로 선정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2022년 10월 8일, 두산 베어스는 '원클러밍' 오재원을 위해 성대한 은퇴식을 열었다. 은퇴 이후, 스포티비에서 해설위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당시 교체되어 올라온 투수 양창섭(당시 삼성 라이온즈)이 제구 난조를 겪으며 몸에 맞는 공을 내렸는데 이 투구를 빈볼, 즉 고의로 단정 지어 해설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스포티비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설 위원직을 내려놨다. 그 이후 야구 아

카데미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 야구선수 오재원을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0일, 함께 있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경찰은 추가 투약 단서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 후 4월 22일, 채널A에서 대리 처방에 연루된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가 8명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대리 처방 요구를 거절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사용했다는 협박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해당 선수 8명은 오재원의 마약 혐의가 드러난 후 진행된 구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해 KBO 클린베이스센터에 보고했고,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오재원의 변호인은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일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두산 베어스의 현 감독인 이승엽과 프로 야구선수협회 회장인 김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4월 23일,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은 잠실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야구계 전체의 문제고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 이상 드립 말씀이 없다.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도 숙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프로야구선수협회 협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도 현

상황과 관련해 안내문을 발표했다.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다. 이어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그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함께 발전하자"고 했다. 두산 베어스의 팬들 역시 오재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니폼을 판매하거나 유니폼을 아예 찢은 인증 사진을 올리며 큰 실망감을 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재원의 직접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한때는 스포츠 스타였던 오재원이 마약을 투여한 사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격분했다. 자신은 은퇴해 이 일에서 발을 떼도 팬층을 지업정 이 때 막 프로에 입단한 후배들은 대신배의 '대리 처방' 부탁에 거절도, 수락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가 마약에 대단히 엄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다가, 특히 스포츠계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마약을 투여했다는 점에서 다시는 한국 야구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복용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수와 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마약 없는 깨끗한 스포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조수빈 기자 1204bin@gmail.com

이달의 영화 - 헤드윅

사랑의 필요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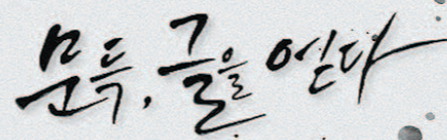
• 영화 제목 : 헤드윅
• 영화 감독 : 존 카메론 미첼

뮤지컬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은 존 카메론 미첼이 극본을, 슈테판 트레스크가 작곡을 맡아 1998년 미국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오프브로드웨이 무대를 거쳐 2014년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진출했다. 현재 한국 라이선스 14연 공연이 6월 23일까지 있다. (헤드윅 역 : 조정성, 유연석, 전동석) 영화는 2002년 8월 9일에 개봉했다. 주인공인 헤드윅은 성별 젠더를 남성 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별인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이다. 이 영화는 성소수자 서사지만, 성소수자뿐 아니라 소외되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뜨거운 공감을 전한다. 주인공인 '헤드윅'이 남편 '이츠학'과 앵그리 인치 밴드와 함께 공연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하는 컨셉으로 시작된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관객은 헤드윅이 누구이며, 열 받은 일인치 사연이 무엇인가를 헤드윅의 노래, 예니메이션을 통해 알게 된다.

헤드윅의 원래 이름은 '한셀 슈미트'. 시대상 풍독과 서독은 분리돼 있던 시기였다. 영화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으로 관리된다. 분단된 서독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닦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동독은 전쟁 배상 책임을 안음으로 경제가 침체된다. 이에 많은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탈출했고, 이를 막기 위해 동독 정부는 1952년 접경지 지역에 철조망과 장벽을 설치해 탈출을 막았다. 동독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된 비인권적인 국가였음을 기억하고 넘어가자. 한셀은 어린 시절 미군인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하고 어머니에게 방치된 환경에서 자란 캐릭터이다. 그에게는 자유와 사랑이 필요했고, 어느 날 그런 암울한 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동베를린에 파견된 미군 '루터'가 그에게 사랑을 말하며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을 따 '헤드윅 한셀 슈미트'로 이름을 바꾸고, 결혼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만 싸구려 수술의 실패로 그의 성기엔 여자의 그것 대신 1인치 살덩이가 남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온 헤드윅은 루터에게 버림받고, 트래일러 하우스에서 연명하는 신세. 이혼하고 무너진 베를린 장벽,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첫사랑 '음악', 물론 '하드렛', '성애화된 노동'도 한다. 그 과정에서 조성한 앵그리 인치 밴드, 헤드윅의 음악에 반한 '토미 노시스'는 그에게 음악을 배우는데... 헤드윅은 그를 자신의 반쪽으로 여기고 사랑했지만, 토미는 헤드윅의 1인치 살덩

이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음악만 흠뻑 스타가 된다. 그래서 공연장은 토미가 공연하는 타임스퀘어 열 극장이다. 헤드윅의 화려한 분장은 그가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속에서 그가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며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초반 <Tear me down> 넘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 있는 헤드윅에 대해 '상상 속 분쇄'의 경계로 소개한다.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헤드윅이 했던 희생은 뒤였을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며 제공된 '자유'는 헤드윅을 해방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드윅의 존재를 지웠다. <The origin of love> 넘버에서는 원래 하나의 몸이었던 소년과 소년, 소년과 소녀, 소녀와 소녀들, 그들은 신에 의해 몸이 갈라지고 흩어져 이제 서로의 얼굴은 기억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몸이 되기위해 사랑할 거라는 내용이다. 이 곡은 헤드윅이 자기 정체성을 나를 사랑하는 다른 반쪽에서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완전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지막 <Midnight Radio>를 통해 영화는 끝난다. 사회와 사랑에 대한 분노와 냉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헤드윅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에 관객들은 함께한다. 뮤지컬 헤드윅은 배우의 재량이 돋보이는 뮤지컬로 관객의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화려한 분장, 새로운 무대 기술, 록 스피릿이 가득한 노래 속에서 헤드윅의 슬픔, 증오, 아픔, 외로움을 느껴보자.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서랍장 열어봐, 잘린 손목 있으니까



창작 글 동아리

"잘잘해, 손이 너무 시리다"

유리창 너머의 네가 두 걸음, 뒷걸음질 쳤다. 천천히 뒤를 돌아 발을 옮겼다. 나는 네가 보인다. 듣거나 만지거나 할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다. 너의 마음 또한 느껴진다.

개새끼. 사이코 새끼. 이 지경이 돼서도 찾아온 거야?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쳐.

달려오던 차에 몸이 박살났다. 뼈들이 부서지고 찢어진 피부 사이에서 붉은 피들이 뿜어져 나오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신기한 경험을 했다. 몸들은 산산히 부서졌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영혼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나는 죽었지만, 또 살아난 것이다. 떨어져 나간 내 손목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자유가 되었다.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로부터.

어릴 때부터 도벽이 좀 있었다.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단련된 손놀림인지라 웬만해서는 들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대학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장소 또한 구애받지 않았다. 나는 이리저리 날뛰었다. 덤벼거리는 사람들을 주로 골라 값비싼 것들을 챙겨 중고로 팔아먹었다. 이 부업을 멈춰야 했다.

그 새끼한테 들키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 그거 훔쳐서 어디다가 팔게?"

다음 호에 계속...

20 서주희

TALK

생활/진로/취업 고민이 있다면?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

1:1 진로/취업 컨설팅
청년 고용 정책 및 혜택 안내
IPP형 일학습병행제
K-MOVE스쿨 연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051-320-2716



2024 해외교육프로그램

오울루대학교 교환학생

1. 신청기간 : ~6/26(수) 15시까지
2. 신청방법 : MYDEX
3. 면접 : 6/28(금) 예정
4. 파견기간 : 24.12.30~25.05.31
5. 파견대학 :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6. 신청대상 : SW중심학과 3학년
7. 인원 : 4명(예정)
8. 지원내용 : 항공료 및 보험, 비자 등 자부담 있음

신청 기준
TOEIC 680점 이상 신청 가능
9월 말까지 780점 이상 달성시 오울루대학 합격 예상

051.320.4207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지?

대학생이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하는 TOP 6



▶ 봉사활동 하는 장면

드디어 종강과 여름방학이 왔다. 방학은 공부와 학업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 또한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생활과 미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동안 어떤 경험과 능력을 쌓으면 좋을까?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는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다.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쳐보자.

전국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지역, 분야, 시간 등 조건에 맞는 봉사활동을 검색할 수 있다.

'VMS' 또한 봉사활동 정보 플랫폼으로 봉사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활동을 찾아 참여해 보도록 하자.

서포터즈

기업, 정부 기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해 보자. 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주로 대학생 커뮤니티, SNS, 공모전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온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모집하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는 공공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는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이벤트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공모전

전공 관련 공모전이나 동아리 공모전 등



▶ 팀원들과 함께 공모전에 나가보자

에 도전해 보자. 전공 실력과 창의력을 겸중받을 좋은 기회다. 인상한다면 장학금 지원이나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작품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모전에 같이 참여할 인원이 부족하거나 인제가 필요하다면 '대터존 사이트'에서 구인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링크어', '스펙업', '씽유', '인쿠르브 공모전', '아웃캠퍼스', '위버티', '캠퍼즈', '캠퍼스몬', '캠퍼스피' 등 대학생 대외활동 사이트들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학 공부

여름방학은 학기 중 할 수 없었던 여학 공부에 집중할 좋은 기회다. 해외 연수나 교환 학생은 어떨까. 여학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 어학원 특강 수강 또는 앱을 통한 학습,

언어교환 파트너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토익, 토플, 오피 등 공인 어학 시험 준비는 취업 및 진학에 도움이 된다. 우리 대학은 이번 여름방학에 Asia Summer Program으로 아시아 지역 자매 대학들을 통한 국제적 경험,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했다.

여행 다녀오기

여름방학 기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국내 &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관광지를 탐험해 봄으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우가 여행을 계획할 때 SNS를 켜고 여행이라 검색해 그 지역에 유명한 카페, 맛집, 숙소 등을 살펴볼 것이다. 로컬 잡지를 참고하면 웹 서핑보다 질 높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 여행을 기다리는 우리들

'당신이 모르는 그곳', '스트리트 H', 'inn' 등이 있다. 특히 <inn>은 살아보는 여행을 컨셉으로 로컬 잡지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 인스타그램 말고 이제는 여행 잡지를 통해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인턴생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인턴의 기회를 잡아보자. 인턴십은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성장할 수 있고, 회사의 문화와 업무 환경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도움이 된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 인쿠르브 등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직접 문의해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인턴의 종류에는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우대형 인턴, 프로젝트형 인턴, 스펙

초월형 인턴, 체험형 인턴 등 다양한 인턴이 있고, 인턴을 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비전이 없는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경력만을 채우기 위한 인턴은 시간 낭비만 될 수도 있다.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 알차게 보내기 위한 활동들을 추천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조금 느리다해서 크게 주눅들 필요도 없다. 방학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때 변화해 갈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성장방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건강 잘 지키고 방학동안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노력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학우를 응원한다.

김소현 기자 mylifec0936@gmail.com

대학생들아! 이번 여름은 이곳 어때?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국내/해외 여행지



▶ 제주 해지개

다가오는 여름방학,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갈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여행지 중 어디를 선택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가 좋을지, 아니면 다소 이국적인 해외가 좋을지 말이다. 또한 막상 가고 싶은 곳이 생겨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낼 대학생들이 떠나면 좋을 매력적인 여행지는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한다.

제주도

국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관광지인 제주도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아 즐길 것들이 많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등 좋은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제주도에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름 가면 좋을만한 몇 군데만 소개하겠다.

↳ 해지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오션뷰가 일품이며, 특히 한옥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건축이 멋스러운 곳이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초당 옥수수 데니쉬, 현무암빵,

오메기빵 등이 있다. 내부는 일석도 있지만 한옥 스타일의 좌식 테이블이 매우 매력적이다.

↳ 9.81파크 제주

다양한 레이싱 프로그램 및 실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다. 카드 레이싱, 승마, 981파크 가상 체험 등 다양한 게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카드의 경우 다양한 난이도의 트랙과 본인의 레이싱을 녹화할 수 있다. 풀 패키지 구입할 경우 위 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다.

몽골

수많은 과제들과 경쟁으로 잃어버린 낭만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몽골은 밤하늘에 멋진 별들을 보기 좋은 곳으로 낭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초원과 사막과 같은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 최저기온이 여름에 7~10도 정도로 오히려 조금 춥기도 해서 더운 여름에 가기 좋다.

↳ 홈스몰

몽골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호수



▶ 몽골 고비사막

다. 깨끗한 천연 호수로 맑고 투명한 물과 함께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승마체험을 통해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밤하늘의 멋진 별 역시 만끽할 수 있다.

↳ 고비사막

몽골고원 내부에 펼쳐진 거대한 사막이다. 고비사막의 고비는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고 한다. 사막의 특성을 녹화할 수 있다. 풀 패키지를 통한 투어 형식으로 갈 수 있다. 모래 사막과 멋진 은하수가 보이는 곳이다.

가평

가평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즐길 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여름에 좋은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과 캠핑하기 좋은 곳이다. 숙박 시설과 놀거리가 있는 펜션들이 많아 대학교 MT 단골 장소기도 하다.

↳ 남이섬(춘천)

남이섬은 명목상으로 춘천시 소속이나, 실제 관광으로는 가평과 연이는 경우가 많다. 남이섬의 은행나무와 중앙정자나무, 메타세콰이아 길 등 산책을 할 수 있는 멋진 곳과 동화 나라, 노래의 섬 컨셉으로 꾸준

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선박이나 썰매인, 수상 보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썰매라인의 경우 가평 썰매라인으로, 남이섬과 자라섬을 연결하는 다리 위에 설치돼 있다. 최대 시속 80km로 1분 30초여만에 남이섬에 도착한다.

↳ 가평빠지

가평빠지는 놀이기구와 수상 스키, 웨이보드 등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시설이다. '빠지'의 의미는 부선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영어 단어 'barge'에서 유래했다. 패키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펜션과도 같이 예약할 수도 있다. 또한 빠지뿐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도 존재한다. 물놀이와 식사, 숙박 3개를 모두 다 즐길 수 있다.

삿포로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조금 선선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진다. 그럴 때 가기 좋은 곳이 눈이 워낙 많이와 '눈의 도시'라 불리기도 하는 삿포로이다. 삿포로는 여름에도 최고기온 20도 초중반을 유지할 정도로 날씨가 상대적으로 선선한 곳이라 여름 맞이 여행에 제격이



▶ 가평 스카이라인 썰매라인

▶ 사진 출처-트리플



▶ 삿포로 스카노

▶ 사진 출처-홋카이도 관광

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보고 즐길 것들이 많다.

↳ 시로이 고이비토 파크

시로이 고이비토 파크는 유럽풍의 건물에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담한 테마파크다. 동심을 채워줄만한 감성 아기자기한 테마가 인상적이다.

↳ 스카노

쥬오쿠에 위치한 삿포로 시 최대의 변화가다. '삿포로의 밤'이라 불릴 정도로 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맛집과 상점, 숙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중심지다.

손준혁 기자 sjh730688@gmail.com



임광산
맑은 소리

용기를 갖자! 도전하자!

김효진 (경영학부·4학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21살이었던 나는 4년 동안 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열여섯 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쳐야 한다는 생각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걱정들로 1, 2, 3학년은 마치고 졸업 전 마지막 1년이 남았다.

1학기도 반이 지나가고 있고 기말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다. 대학 생활 4년 차 동안 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4학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시기쯤이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길이 정해져서 진로에 관한 고민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것은 내 생각과 달랐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이번 학기부터 달라지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작은 노력들을 실천중에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고, 성적 또한 잘 받으려 노력 중이다. 사실 나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내가 배워보지 못한 영역의 자격증이기에 많이 어렵고 수업도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접수하고 나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지고 생기는 것 같아 시험은 되도록 접수하려 한다. 나에게서 저런 것들이 작은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나를 점검한다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점검될 수 있어 주변 사람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은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부모님은 확실하지 않은 나의 미래 걱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주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자 하는 것 뭐든 다 해보고자 격려해 주신다.

대학교에서 4학년이라는 가장 고학년 타이틀을 갖고 있기에 더욱 조금씩은 걱정도 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취업과 졸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20대 초중반의 나이는 사회에 나가면

어린 나이일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무엇이든 도전해 봐도 될 것이다. 현재의 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긴 배울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학생이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 같다. 어쩌면 용기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나와 같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가진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젊고 늦지 않았으니, 용기를 갖고 함께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을 쓰면서 나의 대학 생활을 한 번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 나의 상태,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 기분이다.

나도 남은 학기동안에는 학교생활을 함께 있어 도전하지 못한 공모전, 대외 활동, 지금 하는 학교 신문에 올라갈 글을 작성하는 등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 의지로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죽비소리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에게

정은영 (디지털미디어디자인·2학년)

유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알고 있는가? 우리 삶에 있어 사랑은 필연적이고, 항상 상처와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회피하게 된다.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끝없는 외출과 재미를 찾아다녔다.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놀 기회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열감을 찾기 위한 경험 쌓기라고도 생각했다. '재밌게 노는 것'이라 함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기쁘면 기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파하는 것이 있다. 사람은 기쁘면 무조건 웃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웃음이란 건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어렸을 적 나는 감정 표현에 있어 매우 서툴렀다. 즐거워도 무덤덤해 보이고, 슬퍼도 무덤덤해 보였다. '너 혹시 안 좋은 일 있어?'라며 사람들은 줄곧 물어오곤 했다. 난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되묻는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서?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사실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수많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너무 쉽게 간과한다. 고개, 손짓, 억양, 어조, 눈빛, 시선, 말투, 문장, 어투, 등등... 감이 아니라 눈이 감을 수 있는 수단도 많다.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형태 또한 다르다. 누군가에게 섬세함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진취적인 열정이 사랑일 수도 있다. 그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생각해 보자. 같은 가족 구성원끼리도 자꾸 싸우고 다투는 게 사람인데, 나와 내 연인을 사랑하는 국적의 사람과의 소통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사람들은 쉽게 보이는 것들로 자기 뜻에 맞게 정의하려 한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만 같아도, 이런 일에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 '당연히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사회적 가면'을 쓴 채로 지내게 되기 마련이다. 내 진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사

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잃게 된다. 나쁜면이 아니다. 함께 솔직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대조차 사라져간다. 다른 말로 친구라고도 한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상처받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가족이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고, 더 사랑해 주고 아껴주는 주위 사람들을 챙기게 된다.

가까운 곳에 집중해 보자.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나를 더 많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회피하면 안 된다. 오글거려도 유시화의 의원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출주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설

사이비는 왜 문제가 될까?

당신은 꾸준히 믿고 있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힘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힘들어 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사이비는 대부분 더 많은 신도들을 모아 자신들의 신앙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요즘에는 사이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밝혀져 경각심이 조금씩 생겼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연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줄 수 있을까?

서울대 심리학과 박근주 교수가 말하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면의 결핍'이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극심한 불안함을 느끼면,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사이비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의 종교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가 주체하는 모임 들에 나가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다보면 점차 의존하게 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제하는 교주가 등장해 사람들을 세뇌하기도 한다.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부터 문제가 된다. 종교라는 것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이비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비 종교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몇몇 사이비 종교들은 교리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범죄를 강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범죄에 이용당하기까지 한다.

이 종교에 있는 교리에 세뇌된 스스로 생각하는 회로가 정지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하나의 주제로 살아가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흘러가도 괜찮을까? 한 번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심지어는 교리의 거짓과 모순을 발견해도 마찬가지로 다. 박근주 교수는 "실명 교리의 허점과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 자체에 불쾌함

을 느낀다. 대부분 사람은 불쾌함을 무시하고 내가 믿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당시의 기분과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당시의 돈과 자신들의 신앙에 힘을 더해줄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당시의 신앙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돈과 명예, 그리고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 전도를 한다는 거다. 사이비가 집단적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신도들은 두 명씩 짝지어 다닌다. 이들은 둘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는 사방에 신도들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계획적으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앞서 말했던 범죄에 관해서도 말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종교는 범죄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지지하더라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범죄'라는 단어에서부터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교들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이비 신도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분포되어 있다.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조건과 관련 없이 불안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갑자기 빠져드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못된 곳에서 얻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애초에 사이비 종교는 접하지 않게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종교는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사이비 종교는 우리의 자아를 파괴할 수 있다.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종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활거움을 느끼는 이가 있다면 도움을 손길을 내밀기 바란다. 인간은 때로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들을 찾기보다 왜 힘들어 하는지,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2013년 7월 7일 아시아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지상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항공기가 불에 타 파손되는 대형 사고였기에 승무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낼 뻔했다. 사고이후에 한국인 77명을 포함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책임감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중국인 탑승객 2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다쳐 병원은 옮겨졌다. 12명 승무원 가운데 7명은 사고로 실신했고 나머지 5명은 정신을 차리고 승객들의 탈출을 이끌었다. 승무원들은 여객기가 멈춰 선 직후 비상구마다 탈출용 슬라이드를 설치했으며 승객들은 차례차례 슬라이드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여객기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즉시 모를 추가 폭발의 위험을 피하고자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났다. 그중 이윤혜 캐빈메니저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다른 승무원과 함께 탑승객 300여 명과 정신을 잃은 승무원 7명 등을 모두 탈출시킨 후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기내에서 빠져나왔다.

당시 승객이었던 힙합 공연 프로듀서 유진 앤서니 나씨는 미국 윌스트리트저널(WJS)과의 인터뷰에서 이윤혜 씨를 극찬했다. 이윤혜 씨는 당시 꼬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사고 현장을 지켰다.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이 있었다. 2012년 1월 이탈리아 유람선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고 시 선장이 먼저 배를 버리고 300여 명의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다. 그로 인해 32명의 승객이 희생됐다. 그는 결국 직무유기죄로 2,897년의 무기징역 구형받았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 이윤혜를 사랑하는 정신의 여부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들은 신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늘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다. 신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했다. 그 까닭이 뭐냐? 아브라함은 이웃 사랑, 곧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서슴치 않고 출정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신의 계획을 알아차렸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묻는다. 그는 이 뜻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와 공포가 닥치면 반응이 발동한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자기중심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집착하여 나만 살겠다는 태도로 산다면 그 집단과 공동체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예수)를 찾아야 사는 길이 있고 있다. 책임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라기는, 이 글을 읽는 그대가 이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기자칼럼

사라져가는 지방, 한국인가 서울 공화국인가

각각 취직하고자 하는 직장이나 직종을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우들의 과반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확실 할 수 있는 이유는 필자가 뒤에 서술할 자료들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다.

먼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취업도 수도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분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수출 비중은 70%를 웃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천 601만 명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서울 939만 명, 경기 1천363만 명, 인천 300만 명 등이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금, 지방 인구들은 줄어드는 추세

다. 행정안전부에서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작은 집단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교로 큰 집단, 즉 나라, 정부 차원에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의 첫 번째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체 분사들을 다양한 지역에 놓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 간 균형이 깨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던 특색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 불평등, 시설 불평등으로 인한 다른 지역 간의 불만들

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같은 작은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교로 큰 집단, 즉 나라, 정부 차원에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의 첫 번째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체 분사들을 다양한 지역에 놓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방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만 된다면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세대가 각 지역에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지방 지역에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주거지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방 지역의 하나의 메리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수도권 집중화, 사라지는 지방 지역의 문제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방에 대한 조건 없는 배려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수도권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빠르게 풀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 용기를 내어 조건 없는 배려와 지원에 대해 흔쾌히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울 공화국이 아닌 다채로운 한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 쉽지 않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 학우들도 우리들의 다가올 미래인 만큼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내어 줬으면 한다.

류길환 기자
ijw6284@gmail.com



더 내야하는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점점 다가가는 중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여러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달 25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 2대 국회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논란의 중심 한 가운데에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이란 소득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해 노령·퇴직·폐질(질병이나 사고로 업무 수행 능력이 상실된 상태) 등을 맞을 시 계속해서 받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다. 각각 성격에 따라 의무 공적연금, 의무 사적연금, 임의연금으로 분류된다.

퇴직연금은 보통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퇴직금) 개인연금은 따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다. 그렇기에 '연금'하면 매달 월급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해 적립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만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상

황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두 가지 개혁안을 준비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돌려 받는 금액)도 늘려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혁안이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2%로 10년 이내에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지만, 소득 대체율(돌려 받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두안 모두 보험료를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거나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속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속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속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속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원회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의 자문단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오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

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이 작년에 제시한 개혁관안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부금 자동조절장치 도입,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개편 관련 다른 주요 이슈 등도 포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료출처 - KBS 뉴스, 연합뉴스, 독스 토스뱅크, 국가자료체계, KDI 경제정보센터 정은영 기자 indmsdud@gmail.com

연금개혁안 2개 압축

3월8~10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논의 결과

	2023년 기준	1안 더내고 더받기	2안 더내고 그대로받기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63년 (8년 연장)

*매년 0.5%p씩 낮춰 2028년 소득대체율 40%

	현행	납입 의무화 기준 확대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만 60세 미만	만 65세 미만

자료: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준 기자

나에게는 어떤 재테크가 어울릴까?

재테크의 시대, 나도 준비해보자



▶ 관련 사진



▶ 그래프 사진



▷ 사진 출처 - pixabay

현재 우리나라는 재테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테크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자 재무(財務)와 영어(technology)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로 '하이 테크놀로지'의 합성 줄임말인 '하이테크'를 본떠 만들었다. 재테크는 본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 나가는 일반 가계에서도 쓰이게 된 말이다.

일반 가정의 고전적 재테크 방법인 저축이 2000년대 들어와 연이은 금리 인하와 소액 저축 비과세 제도의 축소 및 패자에 따라 재테크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투자나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식과 펀드 투자 등 위험 부담이 높은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게 됐다. 재테크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함께 금융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재테크 전문 지식이 요구되자, 국내 각 금융기관은 투자 상담 전문가를 은행에 배치했다.

이런 재테크에 관한 많은 관심을 바탕

으로 보유 자금을 늘리는 수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마 글을 읽는 독자들도 다들 각자의 재테크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재테크를 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현재 유명한 재테크 방식 중 나에게 어떤 것이 어울릴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래 재테크의 특징을 보고 앞으로의 재테크 계획을 조금이나마 세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주식투자

주식을 구매해 기업의 일부 소유권을 얻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장점으로는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채권투자

정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투자다.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 특징이지만, 주식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 안정적인 장기 수익이 가능하지만, 유지 관리와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금융상품 투자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다양한 투자 방법과 리스크를 제공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 투자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경영하거나 확장하는 것이다. 높은 수익 가능성과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외화 투자

외국 화폐를 구매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만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원자재 투자

금, 은, 원유 등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대비, 다양한 자산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다.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다. 고수익 가능성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변동성과 안전성 부족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저렴한 자금 조달과 아이디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미술품 및 골동품 투자

예술 작품이나 골동품에 투자해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다. 독특한 투자 방법이지만, 평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컬렉션 아이템 투자

특정 아이템(도서, 장난감, 음반 등)을 수집해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다. 특정 커뮤니티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에 설명된 각종 투자 방법은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성향,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자산을 다변화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란 투자의 본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이는 재테크를 하는 개인의 재무 목표, 위험 성향,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돼야 한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

요한 것은 자산 다변화다. 자산 다변화란 여러 종류의 자산을 조합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용어 중 하나의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주식투자에 자산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다양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전에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도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재테크의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을 선택해 자금 관리를 하는 지금 우리 대학 학우들도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을 잘 선택해 재학중에도, 졸업하고 취직해서도 빛나는 미래를 꾸리길 바란다.

류길환 기자 jw8284@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청년도약제1주년 기념 솟품공모전
- 접수기간 : ~24. 6. 10(월)
- 접수대상 : 청년(만 19세~34세)
- 응모분야 : 사진/영상



- 2024년 농업 공공기술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4. 6. 14(금)
- 접수대상 : 제한없음
- 응모분야 : 아이디어/창업



- 제12회 K-해커톤
- 접수기간 : ~24. 6. 14(금)
- 접수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응모분야 : 문학/학술



- 제8회2024 상상패션런웨이 의상 디자이너 모집
- 접수기간 : ~24. 6. 17(월)
- 접수대상 : 대학생
- 응모분야 : 기타



- 2024 KB창작동화제 작품 공모
- 접수기간 : ~24. 6. 19(수)
- 접수대상 : 제한없음
- 응모분야 : 문학/학술



- 2024 MATLAB 대학생시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4. 6. 20(목)
- 접수대상 : 대학(원)생
- 응모분야 : 아이디어/창업



- 제9회 세계일보UCC &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4. 6. 21(금)
- 접수대상 : 제한없음
- 응모분야 : 사진/영상



- 2024 과학영상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4. 6. 30(일)
- 접수대상 : 대학생
- 응모분야 : 사진/영상



- 제18회 빛공해 공모전
- 접수기간 : ~24. 7. 12(금)
- 접수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응모분야 : 사진/영상



- 2024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 접수기간 : ~24. 7. 12(금)
- 접수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응모분야 : 아이디어/창업



- 2024 물류분야 논문경진대회
- 접수기간 : ~24. 7. 31(수)
- 접수대상 : 대학(원)생, 일반인
- 응모분야 : 문학/학술



- 2024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4. 8. 13(화)
- 접수대상 : 제한없음
- 응모분야 : 디자인/웹툰

수습기자 모집 중



QR로

배르게

매달 문화비 2만원 지원
동아리방 사용 가능!
장학금 혜택까지~

기자 1회 체험도 가능, 해보고 결정해도 된다.
신문 제보글은 mylifec0936@gmail.com으로